

표준화 환자 훈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 대 현

서 론

의학교육에서 흔히 사용되는 임상수행평가 방법들은 임상 문제(patient management problem, PMPs), 컴퓨터 임상 시험, 표준화환자 등을 포함한다. 임상수행평가는 암기식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제 수행능력(competence)을 보여주기 때문에 임상수기 모델이나 표준화 환자, 실제 환자가 필요하다. 특정 환자의 문제에 대해 표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연기된 표준화환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화된 환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게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남가주대학교 의과대학 Barrows와 Abrahamson 교수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어 온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은, 의과대학 학생교육·교수개발·의사연수교육 및 중등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수행 방법 및 평가도구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5개 의과대학 중 120개 의과대학이 표준화환자를 교육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본론-표준화 환자의 훈련

1. 표준화 환자의 모집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이하 SP)의 모집은 이미 훈련되어 있는 SP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연기학원이나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전문연기자나 연기를 배우는 학생을 구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환자 연기의 어려움과 시간적인 불규칙함,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어려워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학생이나 전공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역할 연기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이 필요하므로, 의료와 관련된 사람은 표준화 환자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한다.

광고를 통한 모집이나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의 친구나 친척을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표준화 환자에게 필요한 조건

표준화 환자는 일의 어려움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이 힘들므로 의대생과 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연기하려는 환자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건강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와 自我像(self-image)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수행평가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이 빠르고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의사표현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불규칙한 시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표준화 환자로서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면담이 필요하다. 이전에 병원 이용 경험과 감정을 물어보아 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SP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자신이 좋은 SP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게 한다. SP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그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시나리오를 암기하고 회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표(Checklist)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SP에게 연기가 필요한 이유와 훈련과 시험시간에

다른 수당과 훈련 계획을 알려준다. 학생 평가에서 표준화(신뢰도)와 정확도(accuracy)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자료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소감(되먹임)을 들어본다.

3. 표준화 환자의 역할

표준화 환자는 환자와 평가자의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하거나, 자기와 다른 성격을 가진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면접을 시작할 때 학생의 불안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자로서의 역할:** 환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표준화 환자는 자신의 병력과 정보를 일관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에게 동일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면담의 전반적인 평가로 학생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으로 빈혈 환자를 연기하는 것 같은 적절한 연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질문을 받을 때는 전형적인 환자의 반응을 보여야 하며 다음 질문을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평가자로서의 역할:** 표준화 환자는 학생 개개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표의 평가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끈기 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 환자의 불편은' 같은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저의 불편은'이라는 주관적인 연기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생산적인 대화 자세가 필요하며 비판적인 평가 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시간 제한을 고려하지 못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빠졌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 주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4. 훈련 과정

대구·경북 표준화 환자 컨소시엄의 훈련은 1주일 간격으로 4회(3~4시간/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훈련 시간(4시간)에는 훈련 담당교수가 표준화

환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임상수행평가(OSCE/CPX)의 목적과 진행 방법을 설명하였다. SP의 권리(수당)와 책임(계약서)을 알려 주었고 사례 시나리오와 평가표(checklist)를 제공하였다. SP에게 사례를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한 후 이해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임상수행평가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훈련교수가 이학적 검사와 반응을 설명하고 다음 훈련 때까지 시나리오를 공부해 오도록 하고 질문을 받은 후 종료하였다.

두 번째 훈련시간(4시간)에 시나리오에 대한 SP의 질문을 받고 평가표(Checklist)를 외우도록 하였다. SP 두 명이 서로 역할극(role play)을 하여 SP와 교수의 평가표 작성 결과를 비교하였다. 역할극을 2~3회 반복하여 평가표의 정확도를 재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였다.

세 번째 훈련(3시간)에서는 역할극을 1회 시행한 후 평가표를 작성한다. 전공의를 학생연기자로 이용하여 평가표 작성을 실습한다. 학생 연기자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게 하여 반응을 확인하였다. 평가표를 면담하면서 작성하고 기억으로 작성하여 비교해 본다. 다른 훈련교수가 SP를 면담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마지막 훈련시간에는 SP의 시험 시 복장을 점검하고 전공의를 이용하여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경험하도록 해주었다. 다른 훈련 교수에게 사례 연기를 인정받는다.

5. 표준화 환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

- 1) 사례 요약
- 2) 훈련자료
- 3) 평가표(checklist)
- 4) Checklist 평가지침
- 5) 추가정보/이학적 소견
- 6) 학생지침

결 론

대구·경북 표준화 환자 컨소시엄에서의 표준화 환자 훈련 경험에 따르면 표준화 환자의 모집부터 훈련까지 기간은 2개월이 상이 소요되며, 훈련 횟수는

3~5회, 1회 훈련 시간은 3~4시간(OSCE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증례별 표준화환자 모두 매 훈련마다 다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디오 녹화가 되먹임에 도움이 되었고 훈련과 모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첫번째 훈련 모임에서는 전반적인 교육으로 그룹 교육으로 표준화 환자 역할을 정의하고, 시험의 목적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준화 환자의 권리(보수)와 책임(계약서)을 알려주고 토의하였으며 증례와 체크포인트(checklist)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증례 검토로 표준화 환자에게 훈련 자료를 주고 훈련자와 함께 검토하였다. 증례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트레이너는 신체진찰 및 시뮬레이션 하게될 소견을 검토한다. 다음 모임때까지 증례 자료를 숙지하도록 한다.

두 번째 훈련 모임에서는 증례 연기 연습으로 증례에 대한 표준화환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표준화 환자가 서로 다른 학생을 녹화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완성해 본다. 표준화 환자와 트레이너끼리 서로 체크리스트를 비교해 보고 증례에 대한 역할극을 해본다. 이 두 번째 모임에서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은, 표준화 환자가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하고 건설적인 비평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능한 한 자주 시행한다. 체크리스트 작성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 환자의 연기가 증례에 부합될 때까지 피드백을 하면서 역할극을 한다. 증례에 필요한 신체진찰 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훈련하고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임무를 연기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시험 2주 전에 연기와 체크리스트 정확성 향상 훈련을 시행하였다. 표준화 환자를 역할극에 맞게 준비시킨다. 증례를 연기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준화 환자 1인당 2번의 환자 면담을 시행한다. 각 환자 면담 동안 체크리스트를 처음에는 직접 관찰하면서 작성하고 나중에는 기억나는 대로 체크해본다. 트레이너 이외 사람이 표준화환자를 인터뷰해보게 한다.

네 번째 훈련모임은 시험 1주일 전에 총연습(dress rehearsal)을 시행하였다. 전공의나 상급 학생을 이용하여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 교수 이외의 교수가 표준화 환자의 적절성(“authenticity”)를 평가한다.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은 환자와 같은 연기를 수행하여 임상수행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도구이다. 표준화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정책적 지원과 전담 부서와 인력의 확보, 훈련 질화에 대한 사례 개발과 체점자 훈련, 표준화 환자 및 트레이너의 개발, 지역별 컨소시엄과 국가중앙의 지원기관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의사-환자관계와 인성·태도 및 의료윤리 교육과 평가를 위해서도, 표준화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교육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대현. 표준화 환자 훈련 경험. 한국의학교육학회 OSCE 연구회 Workshop 자료집, 2001
2. 이병국. 임상 실습교육과 수행평가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의 토착화 방안연구. 한국의학교육. 2000;12(2):377-92.
3. 일본의학교육학회 임상능력교육연구회. 제 3회 기본적 임상기능 교육법 자료집 A-G. 1998.
4. Abrahamson S, Wallace P. The Southern California Consortium for the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y using SPs: Narrative Report.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1994.
5. Barrows H, Abrahamson S. The programmed patient. Journal of Med Ed. 1964;39:802-5.
6. Harden RM, Stevenson M, Downie WW, Wilson GM.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using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British Med J 1975; 22(2):447-51.
7.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Curriculum directory, 27th ed. Washington DC: AAMC, 1999.